

# 해외출장(독일) 요약

부서 : 안전환경연구실  
작성일 : 2017년 10월 19일  
게시요망일 : 2017년 11월 1일

**제목 : [해외출장노트] ‘한독 환경워크숍: 건강한 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대기질개선책’ 발표 및 정보교류**

## □ 해외출장노트

### 1) 출장 목적

‘한독 환경워크숍: 건강한 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대기질개선책’에 참여하여 서울의 대기오염관리 및 대응사례를 소개하고, 한국과 독일의 대기오염저감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

### 2) ‘한독 환경워크숍’의 주요 내용

- 한독 환경부·환경청, 서울시(서울연구원)·NRW주·슈투트가르트시·뒤셀도르프시, 서울대·이화여대·슈투트가르트대·프라이부르크대,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·세계보건기구 유럽환경보건센터(WHO-ECEH)·세계지자체지속가능발전협의회(ICLEI) 등에서 발표자·패널 20명을 포함하여 3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
- 국내 최대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주제로 한-독 대기질현황 및 대책, 한-독 주요도시별 대기오염개선 사례, 국가간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, 북한의 대기질현황 등을 발표하고 논의
- 발표제목: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air pollution and protect public health in Seoul
- 발표내용: 서울시의 대기질 현황, 최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분석 프로젝트 결과, 진행중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및 최근 제안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대책

### 3) 독일의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,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방문 및 면담의 시사점

- 독일에서도 콘덴싱보일러로 난방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20여년에 걸쳐 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의무화로 정착함.
- 이제는 heat pump 등 더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시설 설치의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.
- 독일의 건물난방 관련 정책도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biomass boiler도 권장하는 시설에 포함

- 에너지효율 측면뿐 아니라 대기오염 측면을 고려하면 biomass boiler는 배제할 필요가 있음(파리시, 슈슈트가르트시 등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 화목보일러 사용 자제를 권장함).
- 서울시 등 우리나라도 콘덴싱보일러, heat pump 등 에너지효율 및 대기오염 측면 모두를 만족하는 난방체계 정착 유도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지원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로 전환 필요

### 3) City of Stuttgart 면담의 시사점

- 열순환 및 대기오염 순환이 어려운 구조인 분지형태의 슈슈트가르트시가 시정부 차원에서 열 및 대기오염 순환을 고려한 도시공간계획을 과학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유사한 지형구조를 가진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.
- 메가시티인 서울시도 도시공간계획에 슈슈트가르트시 방식의 도입 및 적용 방안 고민 필요
  - ENVI-met은 모델링 영역이 제한적이라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 지역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외 활용가능한 모델기법이 있는가 or 새로운 한국형 모델개발이 필요한가?
  - 도시계획부서와 환경부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?
  -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으며, 그 외 중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여 적용 가능할까?

자료제공 및 문의처 :

환경안전연구실 최유진 연구위원 (2149-1182)